



제 4 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 및 제11차 ACAE 이사회 참가기



李廷根
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本協會 국제위원회 의원
by Lee, Jeong-Keun

1. 개 관

격년제로 열리는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1988년 11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3회 대회에 이어 이번에는 제4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1988년 11월에 있었던 아시아 건축사협회 제9차 이사회에서 인도의 루시 캄바타씨가 아카시아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제4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의 장소가 결정된 바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아시아에서의 건축 개발 및 환경'이었으며 통상적 관례인 이사회의를 먼저 치르고 학술강연회를 하는 순서를 바꾸어 이번에는 델리에서 먼저 이틀동안 학술강연회를 하고 아그라라는 작은 도시로 옮겨 하루쉬고 이틀간의 이사회를 하는 일정이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송기덕회장이 아시아 건축사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국제위원회 김지덕 위원장 및 전봉수 위원과 본인이 참석하여 전봉

수위원은 학생멤버리 및 교육위원회의 관계 일을 맡고 본인은 학술회의와 이사회의에 집중하는 반면 김지덕 위원장은 이들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았다. 송기덕회장은 협회의 대외 정책적인 문제와 다른나라 협의와의 친선 및 상호교섭문제에 치중하게 되었다. 한국대표단에는 젊은 학생 2명이 학생멤버리 참석차 동행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4학년 이소진양과 서울대학교 3학년 남수현군으로 영어와 기타 건축상식에 대한 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되었다. 학생멤버리는 9월 26일에 시작하므로 김지덕소장이 학생들을 데리고 25일 먼저 출발하고 27일 저녁에 열리는 학술회의 개막식에 늦지않기 위해 송기덕회장, 전봉수위원 및 본인은 26일에 출발하였으며 이번 학술회의와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 방문단 일행 16명은 27일에 출발하게 되었다.

2. ACA - 4(Architecture, Development, & Environment)

28일과 29일 양일간 발표가 있었는데 28일에는 오전과 오후 각 두 Session에 10명의 발표자가 발표하였고 29일에는 오전의 두 Session에 5명의 발표자가 발표하였으며 오후에는 회장 루시 캄바타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었고 Resolution이 발표되었는데 Resolution은 인쇄물로 배부되지 않아 여기에 밝힐 수가 없으며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발표자들의 구성은 이사회의의 관계로 초청된 사람중에서 서너명 그리고 강연만을 위해 외국에서 초청된 사람이 2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모두 인도사람들이었다. 초청비용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술회의 책자가 배부되었는데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은 5편밖에 없으며 나머지 삼분의 이는 연관된 논문들이다.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표자수를 너무 많이 배당했다는 감을 갖게 된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8~10편 발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논문집에 실리도록 하였으면 좋았을듯 싶었다. 발표논문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들은 인도의 Miki Desai 교수, Mrs.A.Baig와 Romi Khosla. 건축사 B.Doshi 및 중국의 Wu Lianyong 교수 등의 발표이었다. (발표자들이 바뀌기도 하고 발표제목이 적혀있는 유인물이 없었

므로 내용만을 요약하고자 한다.)

1. 9월 28일 Session I

1) Rod Hackney (영국)

Hackney는 현재 세계 건축가협회(UIA) 회장이며 커뮤니티건축에 대한 그의 업적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영국에서도 여러 번 수상한 바 있다. 그의 사무실은 맨체스터에 있는데 커뮤니티건축만 하는지 일반적인 건축설계도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두가지를 다 한다하며 커뮤니티건축은 소득이 없고 오히려 돈을 부어 넣어야 하는 형편이니 일반 건축설계업무를 하지 않을 수 없다한다. 설계사무소원들이 두 가지 일을 모두 같이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일반건축설계팀과 커뮤니티건축팀을 갈라서 하는데 커뮤니티건축에 5~6년 종사한 후 일반건축팀으로 복귀한다고 한다. 커뮤니티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힘이 들고 개인적인 희생이 많아 일단 일반건축팀으로 넘어가면 다시 커뮤니티 건축팀으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발표내용은 커뮤니티 건축가의 관점에서 본 오늘의 도시와 건축환경 및 건축가의 건축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1988년 11월 서울의 제3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에서 그가 발표한 내용과 소재는 달라도 관점은 크게 변한 게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는 건축이 화려한 장정의 건축잡지에 멋들어진 사진을 싣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기념비적인 건축을 남기고자하는 건축가들의 작업 풍토를 예로 들어서 모뉴먼트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대지와 돈을 소유한 건축주를 만난 행운의 건축가의 작품일 뿐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모뉴먼트는 많은 공예중의 한 가지 일 뿐이다. 건축가가 소비지향의 상업주의 문화의 상징물들을 시각화하는 영역에 빠져 버리지 말고 사용자로서의 일반 사회성원에게 묻고 조언을 구하여야 하며 그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서의 건축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정규 건축교육에서 왜 바우하우스 및 서양 건축문화의 지침이 가르쳐져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으며 보다 그들 지역문화를 반영하는 풍토건축을 가르쳐야 하지않겠느냐고 제안한다.

2) Hans C. Bjonness (노르웨이)

Bjonness 교수는 Norwegian Institute of Technology, Trondheim 대학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로 UN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네팔의 수도 카트만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으며 지금도 카트만시를 자주 방문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카트만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데 공업화되고 과밀한 현대도시의 문제점들을 오염되지 않은 전통도시들에 비견하여 검토하였으며 앞으로의 도시에 대해 비전을 여기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현대의 도시는 자연 및 사회의 생태적인 고려를 등한시한 개발에 따라 생태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본다.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과 토지를 상품화한 토지소유제도가 맞물려서 자연을 마구잡이로 착취한 결과 현대 도시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본다. 카트만시와 같은 전통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인간세계와 자연계의 조화를 앞으로의 도시환경에 대한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실천적 대안으로는 지역적인 자원의 이용을 높이고 통제적인 개입을 완화 절제하며 지역간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것이라 한다. 총체적으로는 도시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총량을 줄여서 온갖 유형의 배기, 배설물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9월 28일 Session II

1) Mrs.A.Baig 와 Romi Khosla (인도)

INTACH(Indian National Trust for Architecture and Heritage)라 하는 6년전에 설립된 기구의 사업내용과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영국의 National Turst 와 비슷하고 우리 나라에 비유하면 환경청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장하는 업무까지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과 보전이 INTACH의 주업무인데 인도의 땅이 넓으니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마다 분소가 있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분소의 수는 200여에 이른다. 이 기구의 주요기능은 환경정화 및 환경보존을 위한 지원, 보존지역의 지정, 사회경제 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예술품과 건축유산 및 구조물 뿐아니라 자연자원까지도 보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존지역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계획까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들이 계획하고 추진중인 Leh 유적지와 Andaman 과 Nico-bar 섬의 계획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들

이 추구하는 보존사업이 역사적 유물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총체적인 자연 및 인문환경에 대한 다방면적 상호연관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2) Mrs. Sarayu Ahuja (인도)

Ahuja는 현대의 물리적 환경의 문제를 “What time is this place?”란 문구로 대변하고자 한다. 세계 각처의 도시들은 역사와 지리가 무색해진 온통 고정된 건축 및 계획의 표준이 지배하는 동일성의 바다로 변해 버렸다.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밀려서 장소의 지리 및 지질적인 특성은 매몰되고 건축의 보물들과 역사적 유산들이 사라져 갔다. 우리는 현대도시의 생활환경 속에서 축적된 시간의 흔적이 지워져 버리고 북극의 백야와 같이 시간을 알기 힘든 장소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환경은 사람과 생태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전통취락의 생활환경을 분석해 봄으로써 내일의 생활환경을 계획하는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huja는 인도의 전통취락들을 Domain, Threshold, Interface 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오늘의 취락계획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지리적 형상과의 조화 2. 문화적 환경과의 조화 3. 공간 조직 4. 상징성 추구 5. 위계성 표출 6. 시각장(visual field)의 조절 7. 공간에 시간성의 부여 8. 잔여공간의 활성화 9. 감추어진 질서내에서의 다양성 10. 분리와 연결

3. 9월 28일 Session III

1) David Jackson (오스트레일리아)

Jackson씨는 영국 A.A.School과 미국 예일에서 건축을 공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중견 건축가이며 오스트레일리아 건축사협회 전임회장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시아 건축사협회의 가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발표에 임한 것 같다. 그는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의 사정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정을 병렬해서 얘기를 시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건축에서부터 식민시대의 건축을 거쳐 선진대열에 선 오늘의 오스트레일리아 현대건축을 개관하면서 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 목축업을 위한 원시림의 파괴로 인해 인간의 생활환경에 파급되는 재해를 예로 들었다.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된 건축물들을 소개하였으며 태양과 바람, 물 등 자연의 에너지원을 적절히 이용할 것과 건축재료의 적절한 선택을 강조하였다.

2) Miki Desai (인도)

Desai 교수는 인도서북부 아메다바드 대학의 건축과 교수로서 Gujarat 과 Saurashtra 지방의 풍토건축뿐 아니라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의 건축을 문화발전의 변이에 상관해서 설명해 나갔다. 구즈라트 지방의 건축에 대한 전시회를 최근 스위스에서 가졌다 하며 그 전시회에 출품했던 도면 모형 및 현지촬영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그 지방의 풍토건축과 힌두문화를 반영하는 건축, 후에 포르투갈인들의 영향을 받은 건축, 영국식민시대의 건축 그리고 오늘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여러시기의 문화가 서로 복합 중첩되면서 구즈라트지역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축은 세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그들만의 독특한 건축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의 말대로 문화가 사물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것이고 건축이 집합적 삶의 표출이라 한다면 구즈라트지방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외적인 기준에 의해 재는 것이 우스운 것만큼 그들의 건축을 그들의 문화외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한계를 가지는지 명백해진다. 그는 그 지방 건축에서 어떻게 구조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 및 장식적인 요소들이 그들의 필요와 관심하는 바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용되었는지 보여 준다. 가령 기구단위들이 옥외공간 및 길들과 조합하여 생활공간을 만들어내는 유형적인 발전에서부터 자연의 거대 스케일의 축소 모형을 건축에 도입하는 예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문화의 일반법칙으로 설명해 버리면 문화변용의 핵심을 빠뜨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만약 구즈라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축을 서양건축이나 또는 어떤 다른 문화권의 잣대로 계량하려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가 우리에게도 또 어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리라 생각된다.

Desai 교수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저녁에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그는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 훌륭한 건축이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데 왜 그러한 것들을 들여다

볼 엄두는 두지 않고 서양 일변도로 가서 배우고 학생들 보내고 하느냐하는 의견이었으며 나도 동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외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우리도 우리와 더욱 가깝게 연계되어 있는 아시아 문화권의 건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무와 학계, 신진과 기성, 또 학생층을 포함해서 모든 건축인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건축문화 발전의 물꼬를 터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4. 9월 28일 Session IV

1) Kulbhushan Jain (인도)

보존과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축가 Jain 씨는 다른 발표자들과는 달리 요사이 출판물들을 통해서 세계에 많이 알려진 현대건축가들의 최신 작품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표방하는 서로 다른 디자인 방법과 철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오늘의 환경속에 그 건물이 자리하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하고자 했는가를 설명했다. 대상작가와 작품은 독일 Schirmacher 가 설계한 1944년에 완전 파괴된 Frankfurt 의 Romerberg 대지에 6개의 집을 재건축 한 것, Ungers 의 Frankfurt 박물관, Richard Meier 의 Frankfurt 예술 및 공예 박물관 및 Peter Eisenmann 의 Wexner Center 등 4개였다. 그는 역사적인 지역에 새건물을 앉히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분석의 범위를 재료, 스카이라인, 색채라고 제시했다.

2) Fu Ji Xiang (중국)

Xiang 교수는 중국의 전통적 모티브를 반영하고자한 중국의 현대건축들을 Slide 를 사용해서 설명하였다. 우리 건축계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 전통건축의 외형을 현대적인 재료와 구법으로 그대로 모식한 것도 많고 전통적인 모티브로 현대적인 건축어휘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들도 많이 엿보인다.

3) K.P. Bhattacharya (인도)

개발도상국가의 도시화현상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소득, 고용기회, 문화생활 등의 격차로 농촌지역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이 극심하여 도시지역의 인구과밀과 생활환경의 악화에 더하여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년전까지만해도 이러한 사정이

심각했었고 현재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란 면에서는 동일한 연속선상에 문제점이 계속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는 인구밀도가 높고 주요 도시들은 식민통치의 유산을 이어받아 도시기능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도시문제를 그 도시 자체만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위계적인 여러단계의 취락들의 상관관계로 취급해야 하는 하나의 생태체계로 볼 것을 주장한다. 지방정부는 지방도시의 규모와 경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조세권의 부여등 기타방법으로 실행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은 다 같이 서로 보완하며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어 가는데 각각의 고유영역을 가진다고 보아서 다양한 규모와 기능군의 역할을 끌고루 진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5. 9월 28일 Session V

1) Wu Lianrong (중국)

Wu Lianrong 교수는 북경의 청화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이자 건축도시 연구소장으로 있으며 교육과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각종 국제기구에서 중국건축을 알리는데 열성을 보이는 중국 건축계의 중진이다. 이번 발표내용은 지난 8월 15일에서 19일 사이에 북경에서 “역사도시의 보존과 현대화”라는 주제로 열렸던 국제 심포지엄에서 Wu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다. 아시아의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시에서 주거의 부족과 기존주거의 손괴가 심해서 사회주택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북경, 소주, 장안, 복주, 성도와 같이 역사적인 유적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특히 전통양식의 주택이 밀집되어 남아 있는 도시지역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또는 어느 정도로 보존사업을 해야할지 양면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는 듯싶다. 이 밀집된 전통주거 지역의 도시하부구조는 현대도시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뒤쳐져 있는데다 예전에 수용하던 가구와 인구 수의 몇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원형이 많이 변형되었고 주거조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한다. 북경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관기관과의 협조아래 Wu 교수가 이끄는 팀에게 연구를 의뢰하였다. 우교수는 10여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실행안을 설계하여 실험적인 주택을 세우게 되었다. 중국에서도 역사도시에 산재하는 역사적인 관청건물이나 모뉴먼트들은 보존에 신경을 썼지만 전통양식의 주거와 특히 주거지역을 보존대상으로 하는 사업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북경시에서는 중정식 전통주거가 밀집한 Luo Gu Xiang 지역을 포함한 몇개의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현대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되어온 것처럼 거대 스케일의 재건축과 새건축으로의 대치는 지양되어야 하며 시간의 흐름을 함축하고 있는 환경을 일시에 파괴하기보다는 점진적 복원(rehabilitation)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우교수의 의견이다. 도시의 지역은 유기체의 부분과 같이 신진대사를 계속하며 연구대상이 되는 전통주거지역도 생체조직의 일부분처럼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생활에너지를 계속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생활공동체 생활환경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유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아래 전통 주거지역의 기존 중정식 주거에 대처할 수 있는 2~3층의 현대식 중정식 주거양식을 제안하였다. 아직 입주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Ju,er Hutong 지역에 46가구를 위한 신중정식 주택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이 신중정식 주거의 특징은 전통중정식이 갖는 중정을 그대로 살려 전에 1층이던 건물을 2~3층으로 용적을 늘리고 각 세대마다 독립된 입구와 서비스공간 확보로 독립성을 유지토록 했다. 말하자면 중정식 연립주택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전통적인 중정양식은 한가구 또는 한집안의 여러가구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독립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중정식에는 혈족이 아닌 여러 가구가 모여 살게 되므로 조건이 다른 것이며 단지 가족 성원들이 공용하는 외부 공간이었던 중정을 살려서 이웃 가구간에 공동생활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지붕과 대문등은 전통적인 색깔과 문양, 형태 등을 많이 살렸다. 특히 주목할 점은 hutong 체계라고 명명한 동선체계로서 북경의 전통적 주거단위와 주거지역 및 도시에 일관되게 적용되던 가시뼈와 같이 척추동선에서 계속 가지가 뻗어나가는 식의 동선체계가 이 신중정식주택에도 적용하였으며 이 동선체계는 이 신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기존의 도시조직과 상치되지 않고 연속적인 연결을 보

아시아는 인구밀도가 높고 주요 도시들은 식민 통치의 유산을 이어받아 도시기능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시문제를 그 도시 자체만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위계적인 여러 단계의 취약들의 상관관계로 취급해야 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마치 생체에 이식된 신조직이 그 조직과 신경, 혈관 등이 연결되어서 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 신중정주택은 아직도 실험단계이며 사람들이 입주하여 그들의 반응과 주위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비용문제들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경우는 좀 다르지만 소위 달동네와 같은 불량주거지역과 보존대상으로 지정된 전통주거 보존지역이 있다. 도시내에서의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중국의 참을성 있고 점진적인 해결방법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2) BU Zhengwei (중국)

중국 국영 주택 토지개발공사의 주임 건축사로서 그 기관에서 설계한 많은 건물들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으며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개인사업을 하는 건축사는 아니지만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중국건축사

들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6. 9월 29일 Session VI

1) Xu Anzhi (중국)

홍콩에 인접한 지역으로 중국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하고 있는 심천의 심천대학 건축학과 주임교수이자 대학부설 설계사무소 소장이기도 하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심천지역에 새로 지은 건물들과 도시를 소개했는데 서구의 현대도시를 방불케하며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과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 서고 있으며 홍콩 및 서구의 건축가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건축인들도 기회가 닿으면 중국의 전통적인 도시들과 더불어 한번 관찰해 볼 만한 곳이라 생각이 든다.

2) Jeet Malhotra (인도)

푼잡지방에서 건축설계에 종사하며 학생들

도 많이 교육하고 한 폰잡지방 건축계의 원로에 속하는 분 같다. 꼬르뷔제가 폰잡시 도시계획과 의사당, 주정부건물 등에 관여할 때 꼬르뷔제를 도우며 많이 배웠다 한다. 그의 작품들도 꼬르뷔제의 영향이 많은 듯하며 수준이 꽤 높아 보인다. 요사이 기능주의 거장들을 비판하는 사조를 강하게 질타하는 논지를 폈다. 꼬르뷔제가 모뉴먼트건축을 만들어

내는데만 진력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문화와 역사 지방주민의 생활풍습, 풍토와 기후 등에 대한 각별한 연구와 배려에 의해 오늘 우리가 모뉴먼트라고 생각하는 집들을 설계했다고 반증한다. 어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모뉴먼트건축은 어느 누구의 창작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심상에 스스로 만들어낸 자작품이 아닐런지도 모를 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모뉴먼트 건축은 어느 누구의 창작이 아니다.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심상에 스스로 만들어낸 자작품이 아닐런지도 모를 일이다.

이다. Malhotra 씨의 정열이 너무 지나쳐 할당된 강연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하므로 사람들이 박수로서 연단에서 끌어 내렸다. 그런 정도의 건축에 대한 정열과 생활환경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많다면 인도 건축의 장래는 밝다고 보아야 하겠다.

3) B.V. Doshi (인도)

Doshi 는 일찌기 1951년부터 57년까지 꼬르뷔제가 인도의 아메다바드와 산디갈에 많은 건물을 설계할 때 문하에서 설계수업을 한 건축가로서 인도의 주요한 하우징 계획을 많이 한 건축가이다. 이번 발표한 내용은 그가 1983~6에 설계한 Indore 저속주택 단지지와 1984~6년에 설계한 Vidyadhar Nagar 신도시이다. 그가 관여한 대부분의 하우징 계획들이 산업체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한 사원주택 단지였다. 그러나 Indore 단지는 델리와 봄베이 사이에 위치한 대지에 6천5백 가구를 위한 저소득층 연립주택단지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

면 인도의 도시주변에 빠르게 번식하고 있는 무허가촌의 집단생활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구성의 유형을 발견해 내어 그의 설계에 반영했다 한다. 특히 무허가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중변소의 위치와 공공공간과의 관계를 그 기능은 살리면서 오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독립성을 부여하였다. 공공시설은 작게 여러개로 나누어 전역에 등분포 시키면서 녹지공간 속에 포함시켜서 작은 부분마다의 그룹별 사람들의 접촉을 활성화시키려 시도했다.

Vidyadhar Nagar 신도시는 라자스탄 지방의 Jaipur 시의 위성도시로 계획되었다. Doshi 는 전통적인 사막도시에서 보이는 건물간격을 밀집시키고 중정과 골목을 중첩시켜 공공공간과 개적공간의 층을 누적시키는 방법을 도입했다. 건물의 향도 태양의 직사광선을 적게 받고 바람이 관통하도록 하였다. 전체 도시의 구조는 18세기초에 힌두의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만다라 성상으로 아홉개의 정방형으로 전체지역이 나누어지고 다시 각 정방형이 교차하는 주, 부도로로 분할되는 형식을 빌렸다. 모뉴먼트는 교차로서 중심에서 비켜서게 하며 기능의 눈에 안보이는 면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살고 있는 실제 생활공간에서 발견하여 적용하였다. 그래서 그는 집이 작은 도시이며 도시는 큰 집이라고 말한다. 그의 프로젝트에서 그의 이러한 생각을 느낄 수 있다. 좋은 건축은 스타일을 초월한다고 하며 그는 결론지었다.

7. 9월 29일 Session VII

마지막 회기로서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회장 루시 캄바타의 사회로 최종 결의안(Resolutions)만 낭독하고 인사말을 전하고 끝냈다. 며칠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데모가 폭동화하여 인도 전국적으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학술회의를 끝내고 귀향하는 인도사람들과 제1차 이사회의를 계속하기 위해 아그라시로 떠나야하는 외국 대표단의 안전한 장도를 위해 서둘러서 끝을 맺었다.

《이사회 내용은 '91년 1월호에》